

# 여수시, 묘도 LNG 터미널 사업 ‘본격화’

정부 투자펀드 3호 사업 선정...市 내년도 예산 100억 편성  
여수산단 연간 300만t 공급·고용·생산 유발 등 수혜 기대

정부가 추진 중인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여수시가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금 1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본격 추진한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묘도 LNG 터미널’은 총사업비 1조4천3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정부 펀드 20%, 특수목적법인(SPC) 20%, PF 대출 60%가 투입될 예정이다.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금 중 8%를 여수시가 100억원, 전남도가 130억원씩

각각 투자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난해 7월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 계획이 확정돼 올해 3월 첫 출범했다.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원씩 출자해 3천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방식이다.

특히 지자체가 특수목적법인(SPC)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감도.

〈여수시 제공〉

에 참여해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

대응에도 기여한다는 정부 역점사업이다.

그동안 기재부에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관련 정부 부처와 정책 금융기관, 민간(PF 대주단)과 여러 차례 사업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 심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도 면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시의회에서도 두 차례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중 한 차례는 기재부 컨설팅단을 직접 참석하게 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취지와 문제점, 대책 등을 듣고 사업성, 수익성, 출자 안전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 제2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여수시가 제출한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가결

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사업은 정부가 주관하고 전남도와 여수시가 함께 출자한 만큼 지자체의 성공 출자사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출자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도 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이 완공되면 수입 원료를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해 탱크에 저장하고, 기화 상태로 전환한 후 배관시설을 통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t의 대규모 LNG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1만3천명 고용 및 2조8천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 ‘비타민 풍부’ 고흥 유자 수매가격 30% 상승

농가 소득액 전년比 7.6% ↑ 전망...국내·외 수요 급증

비타민이 풍부한 고흥 유자가 황금빛을 내며 여는 해보다 풍성한 수확철을 앞두고 있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유자 전국 최대 주산지로 지난 11일부터 고흥농협 등 주요 농협과 가공업체에서 생과 수매를 시작했다.

올해 유자 생산량은 고온과 잦은 비로 개화율이 떨어져, 지난해의 81% 수준인 8천410t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수매가격은 평균 1kg당 4천원 내·외로 거래되며, 지난해보다 30%가량 상승해 농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고흥군은 올해 유자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과의 품질은 평년보다 우수하고, 국내·외 수요가 급증해 농가 소득액은 전년보다 7.6% 증가한 178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흥에서 생산된 유자는 이미 전 세계에서 프리미엄 유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차와 음료, 전통주, 하이볼 형태로 젊은 세대에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자 막걸리 ‘달빛유자’를

생산하는 서울장수주와 협약을 통해 판매를 늘리고,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수출길을 개척해 고흥유자가 프리미엄 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 21일 수매장을 찾은 공영민 군수는 “유자가 가공품의 시장 다변화를 통해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국가별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

다”며 “다양한 유자 가공품 개발과 K-푸드 인기로 유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늘려 수급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유자 특구를 중심으로 상품 개발과 가공, 수출,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해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가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2030 고흥 인구 10만명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흥=최봉환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가 지난 21일 유자 수매현장을 방문해 유자 가격 동향을 청취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 광양시, 고병원성 AI유입 차단 총력 대응

가금농장·방역 취약지 주기 소독...기본 방역수칙 준수 당부

광양시는 2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강원 동해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후 3건의 확진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며 AI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0일부터 2025년 2월까지 기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실과 축산차량 소

독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야생 조류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의 활동지인 진상면, 진월면 수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생석회를 도포하고 있으며,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가금농장 및 방역 취약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광양시는 AI 발생상황, 농가 방역 수칙, 의심축 신고 과정을 수시로 가금 농가에 안내하는 등 농가 예찰 활동을 진

행해왔으며 특히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점검 ▲소규모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 ▲가금 농가 입식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농가가 주도하는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 운영 및 생석회 2천kg, 구서제 300kg, 면역증강제 200kg, 소독약 60ℓ 등의 방역 약품을 공급한 광양시는 향후 고병원성 AI 현장 점검과 가금 농가 출하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에 취약한 농가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송명중 농업정책과장은 “현장에 맞는 가축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열 기자

## 화순팜, 올해 매출 목표 30억 조기 달성

직영 체제 전환·전화 주문 편의성 등 매출 증대 주요

화순군은 24일 “지난 21일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이 올해 매출 목표인 3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08년 개설된 화순팜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화순팜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전년도에는 매출 10억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역대 최고인 30억원을 달성했다. 화순팜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명절 이벤트 ▲새봄맞이 ▲축제 연계 ▲여름 이벤트 ▲우체국 브랜

드관 등 시기별 다양한 이벤트와 SNS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매출 증진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화순군 농특산물인 미니파프리카, 복숭아, 샤인머스켓, 토마토, 한우, 돼지고기, 장어, 보리굴비, 기정맥, 화순쌀 등이 고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까지 위탁운영 했던 화순팜을 올해부터 화순군 직영 체제로 전환해 고객들과 직접 소통을 시도했다. 회원 가입부터 상품 주문까지 전화 1통으로

가능하게 해 온라인 주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도 매출 증대에 주효했다.

또한 화순군은 ▲화순 고인돌 축제 ▲명절 직거래장터 ▲동구청과 협업을 통한 총장축제 ▲동구청 직거래장터 ▲서울시장 광장 직거래장터 등 타 지역의 다양한 행사 현장을 찾아 직접 소비자를 만나고, 화순팜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판매했다.

화순팜은 30억원 달성 기념으로 오는 26일부터 12월13일까지 연말 고객감사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전 상품 30% 할인 쿠폰(최대 5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회원에게는 2천원 할인 쿠폰을 추가 지급한다.

/화순=이병철 기자

## 담양군, 어린이 흡연 예방 교육 실시

눈높이 맞춘 인형극 공연...올바른 가치관 형성 기여

담양군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담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는 흡연 시 작 나이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흡연 기

회를 차단하고, 미래 세대의 흡연을 감소 위해 관내 어린이 5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구를 활용한 인형극 공

연으로 재미를 더했으며 코믹 마술, 금연 약속,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참여 활동으로 집중도를 높였다.

정영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공연이 어린이들에게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호흡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순천 그린바이오 사업 추진 ‘청신호’

중투 통과 이어 道프로젝트 시행계획 1호 승인 완료

순천시의 그린바이오 핵심사업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 실행의 첫 관문인 기본 및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전남도 1호로 통과했다.

승주읍 일대를 그린바이오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난 7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시행계획에 대한 전남도 승인이 완료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사업화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으며 사업 추진에 청신

호를 켜다.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스마트팜 보급 및 유통플랫폼 지원, 국내 최초 생물전환 GMP 인증 공장 설립 등 바이오 산업의 기틀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천연자원에 바이오 기술을 더해 생물전환 및 원료화로 발효식품, 화장품, 대체단백 등 고부가가치 농촌형 미래먹거리를 생산하는 핵심 사업이다.

오는 2026년까지 320억원을 투입해 30개 기업의 입주 공간과 아파트형 공장 설비를 갖춘 그린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관 바이오 원료 생산부터 소재화, 제품화, 유통 및 홍보에 이르는 산업의 전(全)주기를 지원하고, 순천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발효식품 개발에도 힘써 순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12월 초 승주 지역 주민과 함께 ‘그린바이오산업의 매가 승주 활성화’를 주제로 그린바이오 산업 및 승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 검토 회의를 개최한다. 지역 주민,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모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성공 모델을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보성군이 지난 21일 보성역 역전광장에서 연말연시 희망트리 점등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점등 기념 촬영을 했다.

〈보성군 제공〉

## 보성군, ‘2024 희망트리’ 설치

보성·별교역...연말연시 온정·나눔 메시지 전달

보성군은 24일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을 기원하는 희망트리를 보성역과 보성별교역 광장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보성역 광장 희망트리 점등식은 지난 21일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념해 보성군 주최, 보성군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200여명의 군민과 방문객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

자가 함께 희망의 빛을 밝히며 연말연시의 기쁨을 나눴다.

김철우 군수는 “보성·별교역에 희망트리를 세우고 군민과 관광객이 연말연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돼 뜻깊다”며 “희망트리 점등 행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트리는 2025년 1월31일까지 운영되며, 연말연시 보성군을 찾는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온정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보성=임병연 기자